

다시 인조반정 사건을 생각하며



토질 및 기초기술사회 부회장

홍 성 영

한 때 역사를 다시 공부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크게 뜨인 사건이 있었다. 바로 인조반정이다. 전에는 그릇된 역사 교육과 역사의식이 결여된 드라마로 인해 광해군이 폭군이었고폭군을 응징한 인조반정은 사를 바로잡은 정의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광해 임금이 숙청된 배경은 다른 데에 있었다. 광해 임금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냉철하게 간파하고 실리 자주 외교 노선을 견지하고자 했던 반면, 조선의 기득권 세력들은 대명사대주의에 눈이 멀어 동북아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한 후금의 실체를 간파하지 못한 채 광해군을 폭군으로 몰아 숙청하는 한편 후금이 내민 손을 뿌리치고 오히려 칼을 들이대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였다. 그 결과 온 국토가 후금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인조 임금은 적장에게 무릎꿇고 항복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당시 동북아의 신흥 강자로서 심양을 거점으로 만주 일대를 평정한 후금으로선 본격적으로 중국 중원을 차지하기에 앞서 조선을 먼저 치거나 조선과 평화협정을 맺어 후방의 안정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지배 세력은 사대주의에 눈이 멀어 정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참화를 자초하였고, 이후 후금은 중원을 차지하여 청나라를 세우고 중국사 최대의 영토를 건설하여 오늘의 중국에 이르고 있다. 반면, 조선은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변방 제후국 수준으로 전락한 채 지리멸렬을 면하지 못하다가 결국 근대에 이르러 일본의 속국이 되는 민족사 최대의 수모를 겪게 된다. 이후 해방과 함께 맞이한 분단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 채 동족상잔의 참화를 겪고 아직도 그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튼금없이 웬 역사 이야기나는 반문도 적지 않을 것이다. 사기들이 흔히 말하듯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을 들러 싸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환수 시기의 적정 여부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군사독재정권에 참여하

였거나 심지어는 광주학살에 가담한 자들까지 나서서 전직 국방장관 운운하면서 마치 우국충정을 토로하듯 거리에 나서는 걸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여하튼 나는 작금의 현실에서 인조반정 사건을 떠올린다. 우리는 분명히 갈림길에 서 있다. 싫든 좋든간에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인조반정이 그랬듯이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중국은 서남공정에 이어 동북공정을 완료하고 한반도에 개입할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반도 통일후 간도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아쉽긴 하지만 현실적인 역학 관계를 고려하여 그 정도 선에서 서로 타협하고 공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 중국의 행태를 보면 우리 나라의 역사는 물론이고 실존하는 우리 나라까지도 집어삼키려고 할 지 모른다는 생각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생각해 보자. 북한이 미국과의 적대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끝내 붕괴하거나 무력 침공을 받아 망할 경우 북한 땅이 온전히 우리 품에 굴러 들어올 것인가? 남북한이 합의하여 평화적으로 통일과 민족사적 통합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 유사시는 외세에 의해 촉발될 수 있을뿐더러 필연적으로 외세의 개입을 통해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라는 전리품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흥정을 하고 일본은 개평이라도 뜯으려고 얼쩡거리는 모습.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리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 때 가면 아마도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루어놓은 성과마저도 날아갈지 모르고 어차피 먹고 살려면 중국이나 미국과 대립하면 곤란하니 일단 참자'는 현실론이 득세할 지도 모를 일이다. 하는 짓을 보면 미국이 여간 못마땅한 것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우리 민족에게 최대의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이 최근 보이는 자기중심주의와 패권주의적 경향에서 이미 그 징후가 엿보이고 있는 바, 특히 영토를 맞대고 있고 역사적 연고까지 일부 겹치는 우리로선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근 건설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축소되고 그나마 투자 대상 또한 과거의 도로나 철도 대신 다른 분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 토목 기술자들의 장래에 대한 우려 역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 돌파구는 역시 해외 진출과 통일 이후 예상되는 대규모 대북 투자일 것이다. 민족사 전체는 물론이고 우리 토목 기술자들에게 통일 이후 북한의 대규모 개발은 매우 기습설레는 일일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KTX는 물론, 고속도로가 신의주, 원산을 향해 달려갈 것이고 나아가 만주와 시베리아를 통해 대륙으로 뻗어갈 것이다. 태평양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으로선 두만강 유역의 항구와 항만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만주와 간도 일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어렵다. 부동산이 절실히 필요한 러시아 역시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서는 두만강 유역을 활용해야 한다. 시베리아 일대의 자원들은 송유관이나 철길로 우리 땅에 직송될 것이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알 것이다.

빠르면 우리 세대가, 늦어도 우리의 후배들이 한반도에서 기안되는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기술자로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무대를 누비는 날이 머지 않아 힘겹지 않게 다가왔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오늘의 현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